

녹색체험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숲을 알린다

2020-04-20

색체험교육 통해 청소년에게 숲을 알린다

-내달부터 11월까지 1,200여명의 청소년에게 녹색체험교육 무상제공-

□ 동부지방산림청(청장 이상익)은 숲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친화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고, 청소년들의 산림 일자리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‘청소년 녹색체험교육*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*청소년 녹색체험교육 : 산림청 정책 중 하나인 ‘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’ 라는 목표 아래 청소년기 다양한 숲 체험활동을 통한 자연친화적 창의인재 양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

○ 2012년도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한 ‘주말 산림학교’ 산림교육 사업을 시작으로,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‘청소년 녹색체험교육’ 을 운영해왔다.

□ 올해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생활 밀착형 숲 확대,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등 2020년 산림청 정책을 반영한 ‘숲에서 누리는 일상’, ‘청소년 숲 지킴이’, ‘꿈나무 숲속 교실’ 등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

○ 학교숲·마을숲을 가꾸고 관찰하거나, 산림 분야 직업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숲 체험·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숲의 소중함을 느끼고, 다양한 진로들을 탐색하며 스스로 꿈을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.

* 숲에서 누리는 일상(생활밀착형 숲교육) : (대상) 청소년 모두 (참여인원) 650명

* 청소년 숲 지킴이(기후변화 대응) : (대상) 초·중·고등학생 (참여인원) 230명

* 꿈나무 숲속 교실(소외계층) : (대상) 소외계층, 보호계층 (참여인원) 300명

□ 또한, 1인 방송·크리에이터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특별 프로그램으로 ‘숲속 영상캠프’ 를 2회 진행할 예정이다.

○ 청소년 스스로가 영상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숲에 대해 직접 기획·촬영·편집하는 과정을 배우으로써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표현력의 발달을 기를 수 있다.

○ 2019년에 개발하여 1회 실시했던 프로그램으로, 참가자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산림환경의 이해도 향상과 숲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2020년에는 확대실시할 계획이다.

〈 2019년도 프로그램 참가자 후기 〉

● (‘필(必) 환경 녹색체험교육 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) “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좋았고, 일상 속 환경오염으로 숲을 다시 못 보게 될까 걱정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”

● (‘숲에서 꿈-희망찾기’ 프로그램 참여 학교) “봄철 산불 피해를 입은 학교입니다.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산림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”

□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“청소년들이 녹색체험교육을 통해 숲의 중요성과 활용가치에 대해 알고, 우리 미래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 라고 말했다.

□ 한편, 동부지방산림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여러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숲이라는 공간에서 활력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올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